

건양대병원, 의료데이터 연구 활용 기반 확대... AI 기반 의료기술, 신약 개발 연구 지원

- 건양대병원,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4.16.) -
- 충청 권역에 공공·임상 데이터 연구 분석환경 확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6일(목) 오후 3시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충청권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연구자가 공공데이터와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물리·기술·관리적 보안 대책을 갖춘 안전한 분석환경

보건복지부는 연구자들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권역별로 안심활용센터를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안심활용센터는 민감한 의료데이터를 외부 반출 없이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안 분석 전용 공간으로, 연구자는 기관 자체 의료데이터 뿐 아니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암 공공 빅데이터**의 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다.

* 보건의료 분야 10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공익 목적 연구에 활용

** 암 질환 분야의 임상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연계·개방하는 K-CURE 플랫폼을 통해 암 등록정보, 진료·청구정보, 사망 등 전주기 암 공공 라이브러리 개방

※ (기운영 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중앙센터, 서울),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대구), 부산대학교병원(경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충남대학교병원(충남), 국립암센터(경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이번 충청권 안심활용센터 추가 개소로 지역에서 의료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확대되고, 임상·진료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 개발, 정밀 의료 연구,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건양대학교병원 안심활용센터는 ‘클라우드* 기반 원격자료열람’ 모델의 시범 센터로서 원내 안전한 활용공간에서 클라우드 내 GPU를 활용한 AI 개발 등을 실증 구성해볼 수 있는 기반 역할도 시험할 예정이다.

* 서버,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서비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최근 AI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안심활용센터 확대가 데이터 기반 연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044-202-2940)
		담당자	사무관	윤재성 (044-202-2949)
담당 부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데이터활용지원사업단	책임자	단 장	정집민 (02-6263-8334)
		담당자	팀 장	조혜영 (02-6263-8347)